

ITU-T TSAG 국제회의

박 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사무관
진병문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1. 머리말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1992년 ITU 추가 전권회의 결의 제3호(각 부문별ITU-R/T/D) 자문반 신설 권고에 따라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C: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1993)에서 ITU-T의 전략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위원회로서, WTSA-2000에서는 TSAG이 WTSA의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연구회기 중 집행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TSAG은 ITU-T의 표준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략 및 정책 계획을 수립하며, 작업계획 및 방법, 표준화 제반 활동에 있어서 관련 기구 간의 협력 및 조정 활동 등을 검토하고 기획하는 ITU-T의 전략 전담 조직이다.

201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TSAG 회의는 ITU 37개 회원국, 21개 부문회원 등에서 총 171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박철 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8명

의 국가대표가 참가했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IoT-GSI¹⁾ 설립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JCA-NID의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명칭을 JCA-IoT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한중일 3국 및 프랑스, ITU-T 사무국이 지지하여 JCA-IoT를 신설키로 했으며,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을 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IoT-GSI를 신설키로 했다. IoT-GSI에는 SG3, SG11, SG13, SG16, SG17 등 다수의 연구반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ITU-T 국제 표준화 추진 방향이 IoT로 모아지는 효과가 예측된다.

2.2 포커스그룹 활동 보고 및 신규 포커스그룹 신설

지난 TSAG 회의에서 승인되어 2010년 6월에 신설된 스마트그리드 포커스그룹과 클라우드 컴퓨팅 포커스그룹의 활동을 2011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반에 동 활동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18

1) IoT-GSI: Internet of Things–Global Standardization Initiative

개월간 활동해 온 미래 네트워크 포커스그룹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물을 SG13에 이관하여 후속 표준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SG12의 제안에 따라 운전 부주의(Driver Distraction) 포커스그룹을 신설하고 그 리드그룹을 SG12로 지정했으며, SG16에게 접근성(Accessibility) 포커스그룹 신설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2.3 전자적 작업방법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포괄적

연구 시작

전권회의 결의 167 및 여러 회원국의 제안에 기반하여 논의한 결과, 전자적 원격참여를 포함한 전자적 작업방법들과 이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작성은 위하여, 전자적 작업방법 연락 그룹(CG: Correspondence Group)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다만, TSAG, 연구반(SG: Study Group), 작업반(WP: Working Party) 회의에 대한 전자적 원격참여는 관찰자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하였다.

2.4 ITU-T 작업방법 관련 논의

한국은 지난 2011년 11월 개최된 ITU-T SG5 회의에서 ITU-T Rec L1000 개정 추진 절차 중 ITU-T의 작업절차 및 규정 준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기고서를 제출했다. 논의 결과, ITU-T 내 모든 SG들은 작업절차를 반드시 준용해야 함을 TSAG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SG5 의장은 동 기고서의 작성 원인이 되었던 절차상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견을 한국 대표단에게 표명했다.

ITU 권고 작업 시 용어 정의에 대한 각 연구반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의 제안을 논의한 결과, ITU-T 사무국(TSB)이 용어 정의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적시에 업데이트 하고, 각 연구반은 승인된 권고에 있는 용어와 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용어를 비교하여 필요시 개정안 작업을 시작하고, 각 리드 연

구반은 중복된 용어 및 정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모든 관련 연구반에 적용 가능한 용어 및 정의들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5 WTS-12와 WCIT-12 준비 일정 논의

말레이시아가 동 행사를 유치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공식 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제네바의 CICG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잠정적인 회의일정으로는 세계표준심포지엄(GSS: Slobal Standards Symposium)은 2012년 11월 5일,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12)는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세계전기통신회의(WCIT-12)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혹은 30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의 개정을 논의하게 될 WCIT-12에 대한 준비 일정으로 이사회 작업그룹(CWG-WCIT)은 2011. 4. 4~6, 2011. 9. 28~30, 2012. 2. 27~29, 2012. 4. 23~25, 2012. 6. 20~22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6 기타 사항

TSB 국장은 지난 전권회의(PP-10, 2010. 1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SG17에서 온라인 어린이 보호(Child Online Protection) 연구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는데, 한국은 SG17이 기술적, 관리적, 정책적 측면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지하였고, 독일 및 스위스는 너무 넓은 활동 범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여 콘텐츠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논의 결과 온라인 어린이 보호 관련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의 연구는 SG17이, 정책적 측면의 활동 연구는 SG2가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전권회의 결의 178은 인터넷 관련 연구에 대한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이행사항에 대하여 ITU-T의 기여 방안에 대하여 공개된 협의를 진행할 것과, 동 이슈를 현재의 ITU-T 구조상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평

가하여 전담 연구반이나 기타 그룹을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WTSA-12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TSB 국장에게 지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TSAG TD196의 제안대로 이메일 리스트를 구성하여 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맷음말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한 국가기고서 2건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무난히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번 TSAG 회의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향후 주요 선진국들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주도로 설립·제안한 IoT-GSI는 유럽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한중일(CJK) 3국의 일치된 지지 표명으로 이번 회의에서 설립 제안된 GSI 중 유일하게 승인되었는데, 이는 ITU-T 활동에서 한중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중일(CJK) 표준협력의 결실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될 ITU PP-2014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오는 2012년 가을에 열리는 WTSA-12 및 WCIT-12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 간의 협약사항에 속하는 국제전기통신 규칙(ITU-R)의 개정을 논의하게 될 WCIT에는 외교부 등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 TSAG 회의는 2012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 용어 해설

액세스권

Right to Access, -權 [방송]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스 미디어(대중 매체)가 발전하고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매스 미디어에 접근해 비판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반론재제권은 그 한 예이다.

